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後門등 캠퍼스 造景計劃

植木日、正覺院周邊등 紀念植樹

學校當局에서는 造景과 造林계획의 一環으로 植木日을 맞아 캠퍼스주위및 연습림 등지에 식수를 하는 한편 今年中 약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後門의 대대적인 造景作業과 敎育學館앞및 正覺院주변 일대의 조경작업을 中點的으로추진할 계획이다.

後門을 학생들의 통학기 리상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일대의 美化및 改修作業이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었는데 금년중 후문을 현 위치에서 제일병원앞 돌목과 통합수 있도록 확장, 개수하는 한편 수위실및 계단의 이전 보수작업도 마무리 지을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방학에서는 植木日을맞아각 學處長을 비롯한50여명의 교직 제8공학관 앞, 전 崇敬殿 부근 일대와 신축된 造景作業과 敎育學館앞및 正覺院주변 일대에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교 재학교인회(회장=洪鍾赫·법정대교수)에서도 종각 아래에 紀念植樹를했다.

또한 이번 植木日을 위해 同門들이 많은 나무를 보내왔는데 본교 대학원 鄭址鎬학장이 향나무 2백그루를 기증했으며 부설 農場에서 향나무40그루와 황철목 20그루를 보내왔다.

한편 白象院(白治會長=李志雄·美術4)에서도 이날 본교 연습림과 기숙사내에 2백50그루의 잣나무를 심었으며, 東大附中에서도 더운등장 뒤편에 3백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3千餘萬원 豫算확보

프로젝트77 北漢山서 豫備過程

프로젝트77 第1次豫備過程이 지난 3일, 北漢山에서 펼쳐졌다.

李丙疇 敎學部長과 白奉欽(法學科) 敎授를 비롯한 교양학부 교수와 學生 5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프로젝트77 豫備過程은 프로젝트77 주최 東友會 學徒護國團 (會長=손근복·경제3) 주관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77 豫備過程은 지난 3, 4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올해 3회째를 맞아 本校농場 (瓦房面所在)에서 3, 4년 생을 대상으로 植木日 기념식및 造林事業을 시행키로 했다.

4명1組로 編成 11~14日 參加등록

18일 北漢山에서 열리는 제8회 東國人登山大會의참가신청을 오는 11일(月)부터 14일(木)까지 4일간에 걸쳐 학생회관앞 東國山岳會 특설캠프에서 받는다.

신청요령은 학년별, 학과별로 팀을 편성, 독설캠프에서 발부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지도교수의 허가(날인필)를 받아야하며 호국단에서 지급하는 참가비를 신청서와 함께 위의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별 편성은 교직원부(교수, 강사및 직원), 학도호국단부(44개학과 소대단위), 써클부(학생과에 등록한 호국단산하 각써클), 同門部(동창회원), 經營大學院·行政大學院·師範大學院·종립학원부(중립고교) 등 5개부이며 편성방법은 각소대 또는 각과에서 1組이상으로 1組는 4명 내외 3명을 합쳐 4명으로 되어있다.

또한 축가는 호국단부, 써클부는 1천원으로 호국단에서 각팀에 전액 지급하게되어 있으며, 교직원부 동문부는 팀당 2천원, 종립학원부는 1천원이다.

출발은 道詵寺 주차장에서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각팀이 도착하는 대로 시간간격없이 실시하며,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팀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이번 登山大會의 코스는도선사주차장→율암분→군창지(점심및 휴식)→원각분을 거쳐 진관사에서 최종 집결하게 된다. 여기서 오후 5시부터 1시간에 걸쳐 시상식겸 장기자랑을 갖게되는데 장기자랑에 출연할 팀 또는 개인은 참가신청에 미리 신청해야한다.

시상은 16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5개부문에는 트로피및 부상을 그리고 護國團部와 宗立學院部중 최고득점을 선정 종합최우수상상으로 우승기를 수여한다.

세칙은 登山의 일반적상식과 꼭 필요한 사항의 점검, 또한 山行에 있어서의 일반 에티켓등을 관찰하게 되며 복장 10%, 장비20%, 산행30%, 시간20%, 山上테스트20%, 등으로 나누어져 실시하게 되며 재단으로 本校에서는 각부별 5명 (단학생=7명, 여학생=2명)이 연간 30명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장학증서수여식에 본교에서는 김학봉(佛敎·3)군이 대표로 참석했다.

다음은 본교의 産學協同奬學財團 受賞者 명단이다.

◇대학=▲김학봉(佛敎·3)、정태섭(사학·4)、남백범(行政·4)、원경숙(農生·2)、이윤희(食工·2)、유정규(史敎·3)

◇大學院=▲김종열(韓士課程·法史2)、장성윤(博士課程·政外3)

敎生實習希望者 8日까지 申請書接受

교무과에서는 77學年度 敎生實習申請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師範大生과 敎職課程을 이수한 78년도졸업예정자로, 敎生實習을 원하는 學生은 이 기간중에 申請書와 신습비 1만2천원및 성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師大生은 사대학과로, 非師範大生은 교무과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4월15, 16兩日間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은후, 18일부터 5월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本校 師大附高및 병설학교등에서 實習을 갖게된다.

敎養學部 讀書 콩쿠르 「佛敎聖典」등 圖書指定

敎養學部(部長=李丙疇博士)에서 실시하는 敎養圖書 독서콩쿠르 5월 지정도서가 발표되었다.

4월30일(土) 오후 1시 敎養學部圖書室에서 열릴예정인 제1차 교양도서 콩쿠르의 指定圖書는 각과별로 추천한 책중 「佛敎聖典」(聖典편찬 위원회)、「孟子」(孟子)、「大地」(펄벅)、「罪와罰」(도스토예프스키)、「異邦人」(까뮈)、「春香傳」(양주동역)、「三國誌」(羅貫中)、「흙」(李光洙)、「나구를 위하여鍾을 울리나」(E·헤밍웨이)、「蒼春賦」(朴鍾和) 등이다.

一週一書 읽기운동에 앞장서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양의 내실을 극대화하로 추천한 책중 「佛敎聖典」을 먼저 책과의 對話를통한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한 교양독서콩쿠르의 축가및 선포식에서 발표되는 다음과 같다.

①매월 지정도서의 讀後感을 원고지 20매내외로작성하여 지정일(毋施前日)까지 敎養學部 敎學課에 제출한다. ②심사는 원고 2백점, 讀後感發表 2백점, 質疑·應答討論이 1백점, 총 5백점을 종합하여 入賞者를 선발한다. ③入賞者에게는 月曜講座時 副賞을 주고 優秀作은 東大新聞에 발표한다.

本校9명받아 産學協同奬學金

産學協同奬學財團(理事長=李活) 奬學證書 수여식이 黃山德文敎部장관, 朴忠勳韓國貿易協會會長, 李活産學協同財團理事長, 鄭允武財團理事(本校 學生處長)와 장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민회관에서 있었다.

産學協同奬學財團은 産學協同에 관한 학술연구비및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財團法人으로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本校 考試指導委員會의 날 25일 발표된 제20회 行政考試 1次合格者 9명과 19회 합격자 11명등 20명, 그리고 外務考試 1명등 총 49명이 司法、行政、外務考試 2次試驗應試資格을 획득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은 오는 12월부터 15일까지 일간실시되며 합격자 명단은 부처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司法、行政、外務試 1차합격자 명단이다.

◇司法試驗 (법과·4) ▲김광우(법·4) ▲이명남(행원·4) ▲장대창(〃·〃) ▲민석기(〃·〃) ▲송연수(〃·2) ▲한경숙(〃·〃) ▲윤병각(〃·〃) ▲진영애(〃·〃) ▲안장훈(〃·〃) ▲김지영(〃·〃) ▲김승동(〃·〃) ▲서보석(〃·〃) ▲이은수(〃·〃) ▲이한곤(〃·〃) ▲이영길(〃·〃) ▲최세봉(〃·〃) ▲신창범(〃·〃) ▲송규수(〃·〃) ▲윤전연(〃·〃) ▲이희석(〃·〃) ▲박호서(〃·〃) ▲윤은석(〃·〃) ▲윤수학(〃·2) ▲정성광(〃·〃) ▲이수철(〃·〃) ▲김종석(〃·〃) ▲장태석(〃·〃) ▲장인(〃·〃) ▲진형진(〃·〃) ▲안춘선(〃·〃) ▲지상용(〃·〃) ▲이진석(〃·〃) ▲장건상(〃·〃) ▲임영록(〃·〃) ▲민병연(〃·〃) ▲권희기(〃·〃) ▲이종대(〃·〃) ▲이홍(行院·1)

◇外務考試 (法學院法科·2) ▲장인(大學院法科·1)

◇大田공무원연수원 참가자 ▲張寅皓(農學3·새마을차장) ▲李光鎬(行政3·총무부次長) ▲申相洙(體敎3·지도부차장)

◇서울中央연수원 참가자 ▲安炳遵(工經3·총무부次長) ▲朴文浩(農經3·MRA총무) ▲金載燦(經營3·UNSA회장) ▲高春植(經營2·감사) ▲朴泰春(電算2·〃會長) ▲林鎭根(化工3·KUSA會長) ▲金珪植(化工2·〃총무) ▲呂京浩(體敎3·自民思想연구회총무) ▲金明豆(經濟3·새마을部次長) ▲李鎭根(國敎3·지도부次長) ▲閔圭語(경영2·PTP총무) ▲金逸俊(電子工2·〃회장) ▲李康輔(農學4·農研會長)

考試 1次 28·行政 20·外務 1名合格 司法 49名合格

本校 考試指導委員會의 날 25일 발표된 제20회 行政考試 1次合格者 9명과 19회 합격자 11명등 20명, 그리고 外務考試 1명등 총 49명이 司法、行政、外務考試 2次試驗應試資格을 획득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은 오는 12월부터 15일까지 일간실시되며 합격자 명단은 부처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司法、行政、外務考試 1차합격자 명단이다.

◇司法試驗 (법과·4) ▲김광우(법·4) ▲이명남(행원·4) ▲장대창(〃·〃) ▲민석기(〃·〃) ▲송연수(〃·2) ▲한경숙(〃·〃) ▲윤병각(〃·〃) ▲진영애(〃·〃) ▲안장훈(〃·〃) ▲김지영(〃·〃) ▲김승동(〃·〃) ▲서보석(〃·〃) ▲이은수(〃·〃) ▲이한곤(〃·〃) ▲이영길(〃·〃) ▲최세봉(〃·〃) ▲신창범(〃·〃) ▲송규수(〃·〃) ▲윤전연(〃·〃) ▲이희석(〃·〃) ▲박호서(〃·〃) ▲윤은석(〃·〃) ▲윤수학(〃·2) ▲정성광(〃·〃) ▲이수철(〃·〃) ▲김종석(〃·〃) ▲장태석(〃·〃) ▲장인(〃·〃) ▲진형진(〃·〃) ▲안춘선(〃·〃) ▲지상용(〃·〃) ▲이진석(〃·〃) ▲장건상(〃·〃) ▲임영록(〃·〃) ▲민병연(〃·〃) ▲권희기(〃·〃) ▲이종대(〃·〃) ▲이홍(行院·1)

◇外務考試 (法學院法科·2) ▲안춘선(大學院法科·1)

◇大田공무원연수원 참가자 ▲張寅皓(農學3·새마을차장) ▲李光鎬(行政3·총무부次長) ▲申相洙(體敎3·지도부차장)

◇서울中央연수원 참가자 ▲安炳遵(工經3·총무부次長) ▲朴文浩(農經3·MRA총무) ▲金載燦(經營3·UNSA회장) ▲高春植(經營2·감사) ▲朴泰春(電算2·〃會長) ▲林鎭根(化工3·KUSA會長) ▲金珪植(化工2·〃총무) ▲呂京浩(體敎3·自民思想연구회총무) ▲金明豆(經濟3·새마을部次長) ▲李鎭根(國敎3·지도부次長) ▲閔圭語(경영2·PTP총무) ▲金逸俊(電子工2·〃회장) ▲李康輔(農學4·農研會長)

新入生대상 適性興味 검사 11日

新入生을 대상으로 한 適性및 興味검사가 오는 11日(月) 月曜講座時間을 이용해 學生指導연구소(所長=鄭允武學生處長)주최로 중강당에서 實施된다.

학생지도연구소에서는 이번 조사된 適性및 흥미검사의 결과는 5月中에 밝혀질 예정이며 각 학생들은 학생지도연구소에서 결과를 열람해 볼 수 있다.

敎授動靜

▲趙潤銖(文理大·國文科) 교수=「趙潤銖文學全集」의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7일(木) 오후6시30분 시내 코리아나호텔 8층에서 열린다. 회비 2천원.

▲金鍾浩(文理大統計科)교수=金國統計學會 論文發表및 定期예시 「고려品質管理에있어 統計學의 역할에 관한 연구」라는 論文발표.

「常勝東國」信念다져 選手懇談會、慰安의밤

東國體育진흥을 위한 「선수와의 懇談會 및 위안의 밤」이 지난 31일 오후5시 學生會館 대식당에서 鄭允武學生處長, 金潤宗體育指導課長및 護國團고부와 선수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선수들의 體育발전과 學徒護國團體育部 주최로열린 이날 행사는 제1부 護國團과 선수와의 간담회, 제2부 선수위안의 밤 順으로 벌어졌는데, 魚潤浩師團長을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가 항상 싸워 이기는 東國體育이 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鄭允武學生處長은 격려사를 통해 「금년부터는 수수한 팀에게는 최대한의 支援을 하겠으나 實力이 일정치 않은 팀에게는 校威宣揚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벌여진 토의에서는 작년의 부진했던 運動部 成績及省察과 올해의 必勝對策, 選手의 待遇문제, 선수사기앙양을 강화, 선수들의 응원활동 강화, 선수들의 학교차량 사용등 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이어 「싱어롱」 미팅에 이어 선수위안의 밤이 진행된 각부대항 장기자랑 과 「싱어롱」 미팅에 이어 선수위안의 밤에 있어서는 各部 主將들의 新入部員 소개가 있었고, 이어

社說

大學의 發展意志

작년 76년도의 한해는 東國學院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記念事業의 三大目標인 世界佛敎學術會議의 高麗大藏經印本完刊및 正覺院 創建(宗敎殿 移轉復元)을 성공리에 큰마침으로써 명실공히 本 東國大學校의 발전상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과시하였다.

지난 3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본교의 법당인 正覺院 開院 기념 大法會를 가짐으로써 李 琉璃總長이 본교 총장취임사에서밝힌 法堂建立의 발원이 그대로 실현을 보게되었다. 이것은 부처님의 智慧와 慈悲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설립된 東國學院에 이미 있었어야 할 法堂이 70년만에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하여튼 작년 70周年 記念事業의 三大目標의 완수는 李總長과 東國學院 理事會및 全東國人의 總和團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大學의 發展史는 그러하듯이 韓國의 大學의 發展도 앞으로 여러가지 양상의 변모를 예견케 보이고 있다.

특히 政府의 首都圈 人口疎散策의 一環으로 地方國立大學의 대폭적인 확충증원과 시설지원및 研究費增額 지급 등의 특혜와 서울의 대학정원 現狀固定策 등은 江北에 자리잡고있는 私立大學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움을 충분한 시련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사실 江北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이미 江南地方에 제2의 校舍를 확보하였을뿐만 아니라 分校의 開設을 완료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본교는 대학 정원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일사불란한 발전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도리없이 落後될 우려마저 없지않다.

그러므로 작년70 주년의 東國中興의 발전의지를 올대 跳躍의 발판으로 삼아 금년을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제2의 校址를 확보함과 아울러 他대학을 흡수하거나 醫科대를 신설하는 문제가 됨으로써 東國學院 轉機가 될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진실로 東國人 전원이 總長 薛琯根 總長을 提示함에 있어서 이미 本校의 全面的인 成長目標을 달성하여 大學의 역사와 中興의 역사적 전환기는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東國大學校의 발전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根本問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民族史에서 불교敎는 우리 民族의 哲學이었고 宗敎였으며 同時에 國家의 理念이었고 모든 文化의 바탕이었다. 그런만이 아니다. 모든 교육은 寺院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學問과 藝術이 이곳을 바탕으로 하여 꽃피였고 모든 偉大한 人物이 이곳에서 양성되었다. 寺院은 다시 하면 佛敎는, 一切의 文化와 思想의 母胎였다. 그것은 解脫의 道場인 同時에 學問의 요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後裔인 오늘의 東國의 요람이 거기에 미치기에는 아직 오원하다. 지금 國內외에서는 한창 韓國學의 붐이 일고 있다. 韓國學의 본고장이 이곳 東國의 殿堂이요, 韓國學이 이곳에서 실상 韓國學의 연구와 理事會의 절실한 東國中興의 大跳躍의 기점이요 韓國學의 발전의지가 이곳에서 지금 다시 꽃필 것을 期待하는 것은 결코 妄想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佛敎의 一切化宗 主張하거나 弱論强辯을 펴려는 것이 아니다. 韓國思想을 흔히 儒佛仙의 結合에 기초를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지로 다른 哲學이나 思想을 排除하지않고 모든 思想을 包攝함수 있는 思想이 곧 佛敎이기 때문에 韓國學은 佛敎를 土臺로할때 모든 對立葛藤 包攝할 수 있는 廣濟의 思想 定立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學의 진정한 定立은 東國大學校의 發展과 韓國文化의 發展과는 相互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와같이 韓國思想과 韓國文化의 本源地인 本校의 一大飛躍的인 발전을 위해 韓國思想의 大碩學인 李瑄根總長의 發展의 志向에 앞에서 밝힌 第二校址確保와 分校開設및 大學擴張의 具體的인 實現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東國學院 理事會의 적극적이고 創意的인 智慧와 決意가 없이는 不可能할 것이므로 學校와 理事會의 절실한 東國中興의 大跳躍의 기점이요 韓國學의 발전의지가 자라나갈 자라나는 것은 아닌지.

근래 도덕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이유부수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편가 국토보존과 직결 된다는 관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하겠다.

5. 燃料林 造成

요즈음도 시골에는 在來式 온돌을 난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燃料의 거의를 산에서 연료채취는 山林破壞의 원인이 되고 있다. 山林에서의 연료채취는 山林資源조성에 고질적인 저해 原因이다. 다행스럽게도 연탄 및 유류의 보급으로 산에서의 연료채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方法을 設定해서 연료채취를 合法的으로 만들면 좋겠다.

폴베기, 잡목제거, 또는 가지치기, 間伐등 임반 撫育方法에의 副産物을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되 실시기간 동을 明示하고 隣近部落民의 협조하에 작업을 하되 副産物은 노력제공 代價로 분배하여준다. 이 方法은 正常的인 撫育方法에의 副産物 이용법으로 兩者 즉 山主나 農民모두가 이익이 될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실시중인 연료림을 계속 조성 운영하되 연료채취의 기술교육을 통로이리니와 파도채취나 남을래 채취하는 사례를 엄격히 규제하여서 파도 채취로 인한 사태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할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궁이 개발을 적극권장하여 가능한 한 林地內의 연료채취 (반벌) 이 아닌지. 자연의 억압속에서 인간의 잔인성은 무의식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닌지.

근래 도덕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妄想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佛敎의 一切化宗 主張하거나 弱論强辯을 펴려는 것이 아니다. 韓國思想을 흔히 儒佛仙의 結合에 기초를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지로 다른 哲學이나 思想을 排除하지않고 모든 思想을 包攝함수 있는 思想이 곧 佛敎이기 때문에 韓國學은 佛敎를 土臺로할때 모든 對立葛藤 包攝할 수 있는 廣濟의 思想 定立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學의 진정한 定立은 東國大學校의 發展과 韓國文化의 發展과는 相互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와같이 韓國思想과 韓國文化의 本源地인 本校의 一大飛躍的인 발전을 위해 韓國思想의 大碩學인 李瑄根總長의 發展의 志向에 앞에서 밝힌 第二校址確保와 分校開設및 大學擴張의 具體的인 實現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東國學院 理事會의 적극적이고 創意的인 智慧와 決意가 없이는 不可能할 것이므로 學校와 理事會의 절실한 東國中興의 大跳躍의 기점이요 韓國學의 발전의지가 자라나갈 자라나는 것은 아닌지.

근래 도덕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

林業生産·造景의 方向

I、서론

山林經營은 造林에서 育林 收穫에 이르기까지 資金, 勞力, 技術이 부단히 必要하다. 우리나라는 全國土面積의 約 67%에 해당하는 광대한 林野를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意慾的인 面을 크나, 山林에대한 投資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林業은 라산업 보다 일시에 많은 所得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며 個人의 利益을 추구하는 동시에 公益的 機能을 가지고 있어서 國民을 에게 정서면에서나 國土 保全面에서 빼놓을수 없는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앞으로 우리는 林業에 대한 政策目標를 명백하게 定立하고 실용성있고 價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인에게 山林投資에 대한 價値性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해당 기관은 國民에게 山林의 중요성 및 높은 投資 價値를 인식시켜서 百年大計의 기틀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하며, 새마을 운동을 山林에까지 전개하여 全國土 綠化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겠다.

II、本論

1、造林의 金業化

造林事業은 조림의 기업화로 경제성제고 및 育林에서 수익성을 높여 줌으로써 林業生産의 기반 조성을 하도록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造林事業이 소득증대의 새마을사업과 직결되어야 한다.

林業이 발달되는 선진국에서는 임업을 하나의 産業으로 발전시키려는 政策을 쓰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私有林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國公有林에서도 임업을 기업적으로 經營하기 위하여 자본, 부작, 수익분을 計算하여 收益率이 크도록 일련投資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山林을 資源보존적 經營에서 탈피하여 山林産業經營으로 하루빨리 轉換이 되어야 하겠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農林大 敎授·農博 金昌浩

2、林業經營構造

林業經營 구조면에서 보면 山林經營및 자원에 대한 영세성 산주들의 소극적인 經營方式에서 脫皮하여 공동경영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集團農場「모샤브」와 같은 제도의 採擇으로 共同運營하여 어느 일개인의 기업이 아닌 共同體로 만들어야 하겠고 이에대한 자금, 林材, 勞動力 투자의 極大化를 추진해 나아가야 되리라고 본다.

3、私有林 經營

私有林의 규모를 비교검토하여 經營의 정상화, 合理化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를들면 株式會社制度처럼 山主는 山林, 그 밖에 사람들은 資金 또는 勞動力을 제공하여 그 배당을 株式會社의 株式과 같이 배당받아 林業經營을 林業기술자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소유株主는 위에서 말한 林材, 勞動力, 資金을 제공하여 次後에 生産된 木材를 販賣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

▲農林大 敎授 金炅濟

4、山林保護

山林이 벌는 피해는 원인에 의하여 도벌, 산불, 동식, 風害, 雪害등의 氣象으로 인한 피해와 그밖에 오즈음 만연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솔나방 등의 곤충에 의한 피해가 있다. 원래 林木은 農作物에비하여 野生性이 크므로 모든 피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나 작업에 노출되어 있어 所有者가 주의를 게을리 할때에는 천연적 내지 인위적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에 蓄積하여온 林木을 모두 잃어버리서 언로채취를 合法的으로 만들면 좋겠다.

5、造林의 目標年度

1982年으로 그때까지 全國土를 綠化한다는 實現方案은 모든 國民이 마을과 職場, 家庭과 國敎 機關과 학교를 동하여 새마을 운동으로 나무를 심는 風土를 造成한다. 林業生産面에 있어서 所得增大를 꾀하고 새로운 國民經濟圈을 造成한다. 종전의 量爲主의 造林에서 計劃性 있는 造林을 실시한다.

장기 用材林 造成을 有償育林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速成樹 育林을 병행하여 經濟林을 造成한다. 관련하여 從前의 官 執行爲主의 조림에서 온 國民에게 적극적인 자연적인 조림을 하여 전국민이 참여하여 綠化를 이룩하도록 한다. 또한 온 山林을 造成하고 중앙을 通路化하여 기가 큰 樹木을 일렬로 배열한다.

▲農林大 專講 金炅濟

植木日 論壇

學校造景의 方向

I、學校環境造成

學校 造景은 科學의 振興과 文化의 發展을 도모하고 연구와 판단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지식및 情緖向上에 寄與하는 일종의 敎化綠地, 즉 學校園이 主체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 환경은 학생의전인적 人性의 所有者를 양성하며 勞生産意識을 고취시켜 주는 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造景에 사용되는 식물은 그 形態에 美的空間, 生活空間을 形成하고 敎育空間에 적합하게 配植하면되므로 비록 저렴하고 일반적인 樹木이라 하더라도 論理的, 倫理的, 經濟的 및 美觀的 입장들을 고려한 종일적 형태만 구비되었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구성의 효과를 표현함 수가 있다.

調和는 전물의 형태, 色, 運動場의 대소, 周邊環境들을 고려하여 수목을 植栽해야한다. 환경의 美는 藝術의 美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校內의 자연경 보존을 불들은 建築, 개발로 파괴된 景觀을 복구하고 生産的이며 經濟的인 학경을 조성하여 보다 機能的이고 視覺的으로 조화시킨 藝術科學이 바로 學校 造景이므로 生産空間과 敎育空間을 표현한 藝術作品이되도록 造景構成을 해야한다. 또한 情緖的인 학경 조성도 어디까지나 學生 위주의 情緖環境이 될수 있어야한다.

II、學校園

學校園의 목적은 학교의 환경을 美的으로 정비함과동시에 학생의 학습장, 오락시설, 휴게시설 등의 구비로 좋은 학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학교정원의 樹種은 교재원의 性格을 표현하면서 美觀을 고려하여 건물이나 圖書館에 우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學校 圃地構成은 藩殼 구성 요건에 합당하도록 조성해야 되며, 이 것이 될 때 개인의 利益에서 벗 어나 公益的 機能을 가지고 있어서 國民을 추구하는 동시에 公益的 機能을 가지고 있어서 國民을 에게 정서면에서나 國土 保全面에서 빼놓을수 없는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내놓을 만한 賦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루빨리 産業을 高度化하고……◎
◎……自立經濟를 촉진해야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놓여 있다. 山地를 資源……◎
◎……化하고 國土의 生産性을 극대화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자못……◎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山地는 6년생 이상의 나무가 1%밖……◎
◎……에 못미친다고 한다. 造林의 잘못과 山主의 영세성이 그……◎
◎……주 원인이다. 더우기 장기투자의 하나인 林業은 7년 이상을 김……◎
◎……려야 자본회수가 가능하다. 5월로 제32회 植木日을 맞아, 林業生産……◎
◎……은 어떻게 증강 할 수 있는가와 學校 造景의 諸問題를 살펴 본다. ……◎
◎……

<編輯者 註>

有林에서도 임업을 기업적으로 經營하기 위하여 자본, 부작, 수익분을 計算하여 收益率이 크도록 일련投資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山林을 資源보존적 經營으로 하루빨리 轉換이 되어야 하겠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學校園 造景에서 달피하여 山林産業

研究室隨想

開化鏡과 안경

曺永祿 <文理大敎授>

책과 씨름하고 생활에 시달리다보니 고향을 찾는 일은 일년에 한번 있을까말까다. 고향은 비록 그리던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어릴적 뛰놀던 山野는 더없이 맑아지고 감정이 전에 없이 메마른 것도 아닐 것이다. 이곳은 그 옛날 모르고 지나쳐 버린 것도 있을 것이다. 즉 圖書館 열람실 이용자 수는 늘었다. 또 참고 정기간행물실은 어느 해보다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이것은 도서관이 점차 案內 情報提供(Information)의 기능에 충실하여 완전한 문헌정보실은 아니더라도 한 짧은 기간동안인 어보는 것 보다 가급적 구입하여 完讀하겠다는 心理的 현실적 욕구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즐비한 書店街에서 良書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독만있으면 自己目標 실현을위한 노력이 얼마나 結實을 맺을 수 있는 世代, 불리는 知識慾으로 도서관과 書店을 분주하게 드나드는 것은 한마디로 제자리를 自律的으로 확보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진다.

敎授와의 對話

멸빈다고 知識은 결코 없는다, 방대한 量의 도서와 새로운 정보의 폭발은 필연적으로 몰라 없어하는 필요를 요구한다. 多讀·多思·多作의 三多가 의미하는 바와같이 「생각하는것」 「쓴다것」으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여기서 專門家의 助言이 필요하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高見을 갖고 있는 者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적이다. 이렇게 볼 때 指導敎授의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독자적으로 主題를 선정하여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엔 많은시행착오가 따른다. 學問의 領域은 넓고 깊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구축이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敎養書가 많이 팔리다는 어느 書店의 집계는 이를 입증하고있다.

76년도 卒業論文施行規程이발표된 이후 도서관 貸出實態를 살펴보면 점차 讀書傾向이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圖書館 열람실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도서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도서관의 장서구축은 오늘날 학생들의 도서구입에 부채질을 했던 것이다. 이제 出版業의 企業化로 읽하는 책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값이 싸지는경향이짙다. 학생들의 도서구입에는 무리가 없다.

卒業論文制 시행은 확실히 체계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논문은 그 質이 어떻든 간에 진지한 學究的 자세와 專攻書籍의 精讀을 요구한다. 그러나 거기엔 敎養書의 讀書를 통한 기반구축이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敎養書가 많이 팔리다는 어느 書店의 집계는 이를 입증하고있다.

76년도 卒業論文施行規程이발표된 이후 도서관 貸出實態를 살펴보면 점차 讀書傾向이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圖書館 열람실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도서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도서관의 장서구축은 오늘날 학생들의 도서구입에 부채질을 했던 것이다. 이제 出版業의 企業化로 읽하는 책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값이 싸지는경향이짙다. 학생들의 도서구입에는 무리가 없다.

卒業論文制 시행은 확실히 체계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논문은 그 質이 어떻든 간에 진지한 學究的 자세와 專攻書籍의 精讀을 요구한다. 그러나 거기엔 敎養書의 讀書를 통한 기반구축이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敎養書가 많이 팔리다는 어느 書店의 집계는 이를 입증하고있다.

76년도 卒業論文施行規程이발표된 이후 도서관 貸出實態를 살펴보면 점차 讀書傾向이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圖書館 열람실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도서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도서관의 장서구축은 오늘날 학생들의 도서구입에 부채질을 했던 것이다. 이제 出版業의 企業化로 읽하는 책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값이 싸지는경향이짙다. 학생들의 도서구입에는 무리가 없다.

卒業論文制 시행은 확실히 체계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논문은 그 質이 어떻든 간에 진지한 學究的 자세와 專攻書籍의 精讀을 요구한다. 그러나 거기엔 敎養書의 讀書를

읽고 쓰게 되었다

敎授와의 對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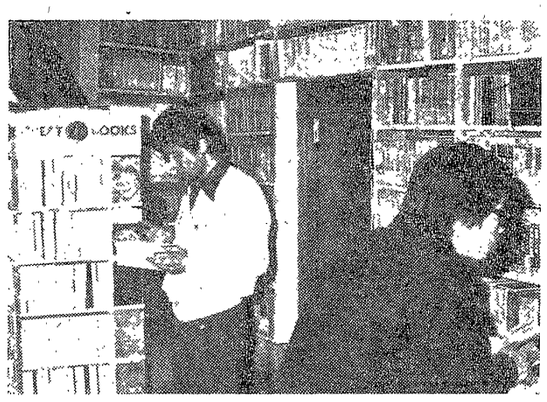
「先學」으로부터의 지도가 필요하다.

敎授와의 대화는 이럼 뜻에서 매우 중요하며 寧政에 관한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大學人만이 가질 수 있는 독수한 고민이있다. 이때 보다 높은 次元의 對話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指導교수제는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 2학기 학생상담실의 활동으로 더소 한산해진 統計가 그것이다. 學問의 世界를 더욱 심화하고 人格形成의 매우 유익한 계기임을확인해주는 까닭이다.

學問探究의 극극제

勉學의 길은 그 분야기초성과 자신에 대한 克己로써 효과를내가시킬 수있다. 勉學분야기를 얻마나 자신에대한 자극제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圖書館을 찾는것은 그만큼의 자극요인이 된다. 그 분야기에 휩싸여 자신의 學究熱을 촉발해주까말이다. 이럼 관점에서보면 연구실과 도서관 활용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학생들은 가지고있다. 學問의 목표가 비슷한 學友끼리 모여 연구하는 곳인만큼 상호간에 交換하는 정보는 어느곳보다 빠르다. 지난날의 학생들은 國家試驗에 대비, 山寺를 찾거나 했다. 지금은 그럼 傾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 보인수에 뒤질 뿐더러 그만큼 大學內의 여건이 좋아진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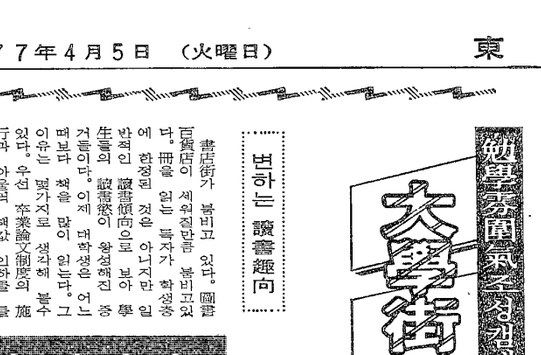
우리의 캠퍼스는 어느 社會보다도 內的 캠퍼스다 이것은 그만큼 學問탐구의 자극제가 된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書店.

敎授와의 對話 領域 넓어

붐비는 圖書館, 읽고 쓰기에 바빠



<(完)>

研究室隨想

科學的 사고

辛孝善 <大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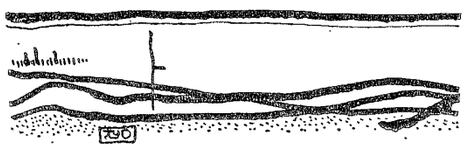
研究室 「隨想」에 대한 많은 원고 청탁을 받고 그것도 몇번의 독촉을 받고서, 막상 펜을 들었으나 무엇을 써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몇시간을 소비하였다. 날은 다해 저물어 가는데 연구실에서 보내는 이러한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고 그것을 이러한 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또 한편 그 무엇이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이것을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도 그리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무엇이라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을 쓰는 것이 나의 연구실 생활에 있어 그리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쓰는 것이 나의 연구실 생활에 있어 그리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겨울江

金善雅

어둠조차 혹 꺼버려
쪽어서도 잘 길이 막막하다는
겨울江
영은 벌판에 가늘음 목아지만 걸어 놓
으면
눈발 퍼어가며
목아지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떼
비늘 씻어낼 江물을 찾아
식어진 가슴피를 잠아 넣는다.
눈에 묻으면 피가 말라
핏덩이위에 살얼음이 낀다는
겨울나비의 비늘
나비의 살속 깊이 숨긴 눈물 하나 흰
들레도
어지러워, 겨울江은 어지러워
동행하면 바람까지 어지러워
어둠조차 꺼버려 길 없는 마을에서
목아지 속엔 눈발보다 조용한
몸천만 살아 날아 길이 되어
서쪽 마을로 서쪽 마을로
달 뒤진어스고 돌아나간다.

<文理大·國文科>



버들강아지 봄

김근식

철이, 영이, 식이… 동네 개구쟁이 들은 나랑 친한 친구들 입니다. 저번 날, 우리는 동네 뒷산에 모였습니다.

『봇이란 건 계절에 상관없이 피는 거야. 지금 개나리가 피였지? 작년가을 신문을 봐, 개나리가 피였었단 말이야.』 어떻게 개나리가 봄에만 핀다고 할 수 있니? 그러니까 꽃들에게 현혹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공연히 어깨나 들먹거리고 축은 데도 가는 것은 웃기는일이지. 자, 너희들 엄마한테 오바탕, 코트랑, 수달피 목도리랑 꺼내달라구 그래 입고 다니란 말이야. 참 네네 누나들 밖에 있는 버들 강아지란 놈도 이 상해, 약간은 쾌활하지. 목 중국 사람들 같애.

흐린 오후. 외곬으로나 가 앉은 권태와 피로. 창 밖 너머로 투시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척 어나 바쁜 데도 활일이 없다. 애초부터 빈 가슴으로 지녀야 했던 냉엄한 부재가 하루의 함창단속에 드러나고, 내가부재한 그 함창단의 화음은 봄의 언저리에서 바람을 태웠다. 계속 바람은 불고, 바람은 불어 봄을 느끼고, 이어 우리의 주위에는 봄이 오고 따뜻한 기후와 삶을 맞대면 봄은 이 나른한 하루를 믿고, 푸른 나무가 지를 벌리며 다가 오고 있다. 어제면 코도소의하늘 같기도 한 이 하루의 기상은 종일 기침과 싸움을 하고 봄을 시기하는 꽃샘바람당 나의 투정은 계속 됐다. 내가 확인되고 나의 실증이 면 쪽을 기다리는 노 인의 천식이나, 옆집, 어 느 옆집, 과부댁의 철진 기침과 가래 소리를 나랑 듣고 있는 것은 그 귀찮은 봄 비가 오던 날 도회지의 그 길었던 겨울이 만들 어낸 이야기는 그만 그 라도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겨울의 보금자리 속에 있던 봄이 동 산 속에 있던 봄이 동 산 속에 있던 봄이 동 산